

개화기 이후 우리 '옷치레'의 변천사

「한국양복 100년사」와 「한국여성양장변천사」

개화기 이후 우리 옷치레의 변천을 통시적 맥락에서 분석·고찰한 책 두권이 최근 거의 동시에 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수필가 김진식씨가 펴낸 「한국양복 100년사」(미리내)와 국민대 俞水敬교수의 「韓國女性洋裝變遷史」(일지사)가 그것으로, 전자가 남성의 옷치레를, 그리고 후자는 여성의 옷치레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책들은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특히 이제까지의 한국복식사 연구가 주로 '한복'에 초점이 맞춰진 데 비해 이 두권의 책은, 한복을 의례복으로 밀어내고 일상복의 위치를 차지한 서양복식의 우리문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어 논의의 현실감이 한결 큰 것으로 평가된다.

業界史 성격 짙은 「한국양복 100년사」

이 가운데 「한국양복 100년사」는 “양복의 전래와 양복계의 발전과정, 그리고 선배복장인들의 족적을 책으로 정리해 발간하게 된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 양복업계의 ‘業界史’적 성격이 짙은 것이 특징. 양복관계 전문지 편집주간 및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이사 등으로 20여년간 업계에 종사해온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자료 구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양복 100년사」를 통해 저자 김진식씨가 주장하는 우리 양복사의 기점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면서 문화가 개방되어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배타적인 관계인 왜국정착이 청산”된 1876년.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한국양복사의 발하는 구한말 정부의 内部告示로 단발령과 함께 양복착장이 공인된 1895년에 이르러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는 한국양복사 100년의 곡절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양복패션의 시대적인 흐름 이외에도 특히 양복점이나 양복인, 양복단체, 양복교육, 양복기술 및 양복매체 등에 큰 관심과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양복업계사의 대체적인 조감도를 또한 그려보이고 있다. 예컨대, 개별 양복점의 신문광고나 개척적인 양복인의 인적 사항, 혹은 양복관계 기관 및 단체의 정관에 이르기까지 양복 자체보다는 양복을 ‘만들었던’ 쪽의 이야기들이 풍부한 사진자료들과 함께 자세하게 기술돼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데, 해방 후의 양복사를 다룬 부분에서 이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저자의 박사학위논문들을 책으로 엮은 「한국

종래의 한국복식사

연구가 주로 한복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이들 두권의 책은, 이제는 일상복이 된 서양복식의 우리문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그중 한권이 남성의 옷치레를, 다른 한권은 여성의 옷치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京城南大門通 丁子屋 高級既成服部
電話本局 六二二 九九〇 番

三月中割引大賣出

今春을迎하야弊丁子屋高級既成服部는斬新各種에 春服地를豊富來着滿載하옵고體裁優秀에理想의新 合寸法은二十餘通으로謹製하엿사오호價格도最底 下오니四海諸位시여百聞이不如一見이오니一次枉 臨하심을仰切하나이다

實際春服洋服은昨年에比하면二割以上 下落됨

春服과春외一투

1921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양복점 丁子屋의 기성복광고.

여성양장변천사」는, 「한국양복 100년사」가 업계사적인데 반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가운데 사회문화사적 시각에서 한국여성들의 양장변천사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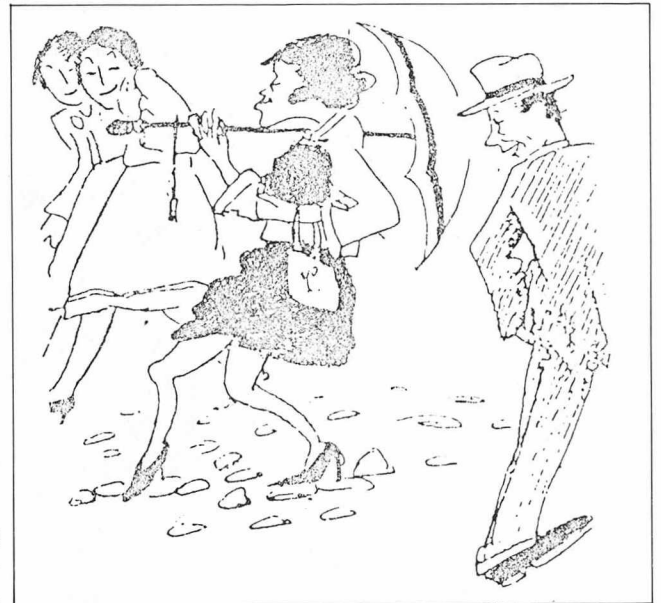
양장이 일상복화하는 60년대까지 다뤄

먼저, 저자는 여성복식 변천의 주체인 여성의 가치관변화를 근대교육과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과 관련시켜 살핌으로써 여성복식 변천의 사회적 배경을 탐구한다. 여기서는 특히 2, 30년대의 신여성과 해방후 지식층 여성의 가치관변화와 그들이 복식변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이 흥미롭다.

제1장 ‘서론’과 제2장 ‘여성복식 변천의 사회적 배경’에 이어 제3장에서는 본격적인 여성복식변천사가 다루어지는데, 개화기(1880~1910), 일제시기(1910~1945), 광복 이후(1945~1960)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 시대의 여성복식을 의복, 머리, 신발 및 장신구의 순으로 살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예컨대 1930년대의 경우, 짧은 길이의 양장과 무릎선까지 올라간 통치마가 유행하던 20년대에 비해 색상이 다양해지고 디자인도 보다 여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며, 머리모양 또한 단발에서 파마머리로 변하며, 장신구로 핸드백의 사용이 늘고 구두의 종류가 다양해져 샌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일제말기의 전시체제에서는 파마나 사치스런 의복의 착용이 금지되어 간소복이나



「신여성」 1925년 6월호에 실린 풍자화. 당시 유행하던 신여성의 짧은 통치마를 꼬집고 있다.

몸빼로 대체되며 양장을 입더라도 군복스타일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이같은 경향은 광복 이후 왜색극복의 주장 속에서도, 당시의 물자난이 큰 이유였지만,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자는 전하고 있다.

어쨌든 이같은 고찰 끝에 저자는 “한국여성복식은 개화기 이후 양장이 도입되자 초기에는 한복의 개량 또는 한복에 양장을 혼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의 간편성으로 말미암아 점차 양장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이러한 추세는 광복과 6·25를 거치면서 더욱 짙어져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여성복식은 양장화하여 일상복으로 양장이 착용되고 한복은 의례복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라는

여성양장사의 큰 줄기를 독자들 앞에 그려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한국여성양장변천사」에도 또한 희귀사진자료와 그림들이 풍부하게 수록돼 있는데, 김활란·윤심덕·박경희·현덕신·박에스터·하난사 등 당대의 여류명사들이 양장을 하고 있는 사진들은 특히 흥미롭다. 아울러, ‘복장사치’와 관련해 신여성이나 여학생들을 날카롭게 꼬집은 신문·잡지의 풍자화 등도 우리나라 여성복식의 풍속사를 알리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어 특징적이다.